

우리 동네, 토지 금고

우리 동네, 토지 금고

글 · 그림

김준영, 송찬휘, 안지율, 오예교, 이정준, 이지수, 이희우, 정호진, 조건우, 조민준, 김견원, 김시우



우리 동네, 토지 금고



9 791197 527555
ISBN 979-11-975275-5-5

비매품/무료
47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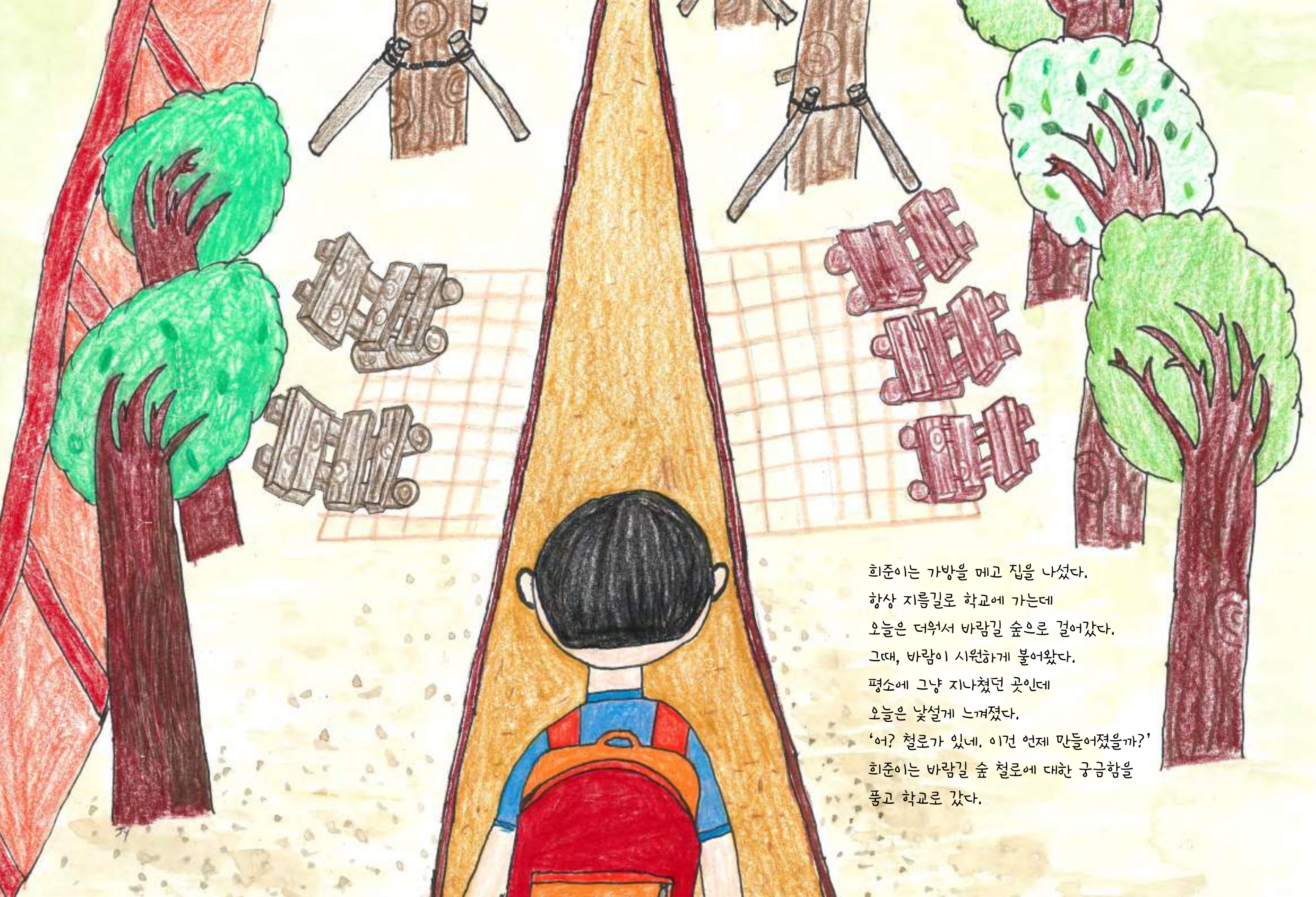
역시 토지 금고

우리 동네, 도지 금고

글 · 그림

김준영, 송찬휘, 안지훈, 오예교, 이정준, 이지수, 이희우, 정호진, 조건우, 조민준, 김견원, 김시우





희준이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항상 지름길로 학교에 가는데
오늘은 더워서 바람길 숲으로 걸어갔다.
그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곳인데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어? 철로가 있네. 이걸 언제 만들어졌을까?'
희준이는 바람길 숲 철로에 대한 궁금함을
품고 학교로 갔다.

희준이는 학교 앞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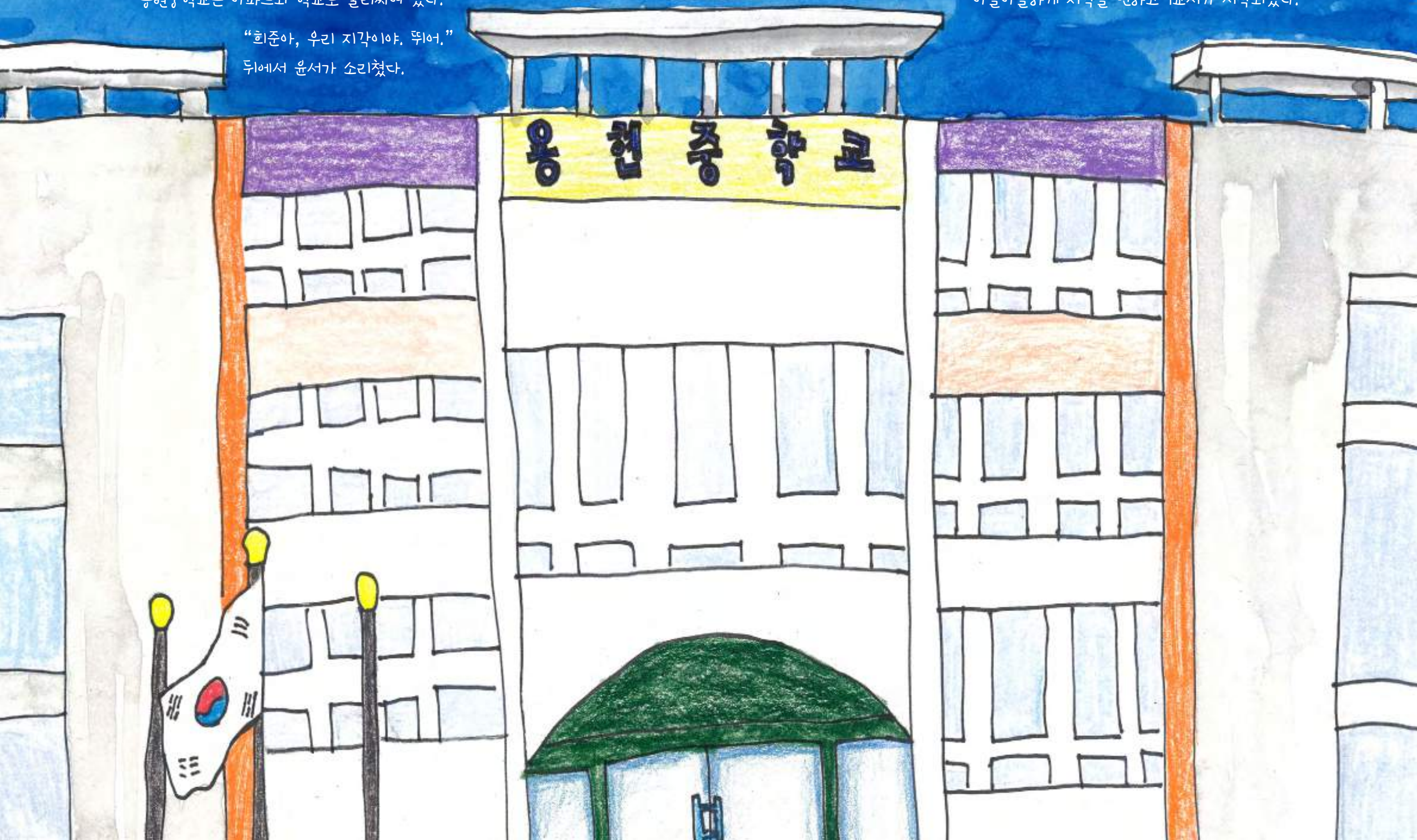
용현중학교는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여 있다.

“희준아, 우리 지각이야. 뛰어.”

뒤에서 윤서가 소리쳤다.

희준이는 윤서와 함께 교실로 뛰어 갔다.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면하고 1교시가 시작되었다.



수행평가

"우리마을 역사 소개하기"



동그란 뿔테 안경을 쓴 역사 선생님이 들어왔다.
역사 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수행평가를 알려주었다.
"이번 역사 수행평가는 짝과 함께 우리 마을 역사 소개하기다."

희준이는 걱정되어 윤서에게 물었다.
"우리 어떻게 할까?"
"학교 끝나고 용비도서관 가보자."





학교 끝나고 희준이와 윤서는 용비도서관에 갔다.
윤서는 익숙한 듯 책을 검색해서 찾았다.
용현동 마을 역사에 관한 책을 찾는데
어른들이 보는 어려운 책들만 있었다.
“윤서야, 이 책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 아파트에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볼까?”
“그래, 좋아. 거기로 가보자.”
희준이와 윤서는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으로 갔다.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에 도착했다.
박물관 안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무슨 일로 왔나요?”
한 할아버지가 반갑게 다가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현중학교 학생인데요.
역사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데 마을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큐레이터입니다. 음, 오늘 용정근린공원에서 마을 행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박물관 전시회가 있어요. 우리 마을을 소개할 사진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다음 주에 다시 오면 어떨까요?”

희준이와 윤서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그럼, 전시회 끝나고는 안 될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희준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용정근린공원으로 오세요.”
희준이와 윤서는 귀찮았지만, 수행평가 만점을 받기 위해서 용정근린공원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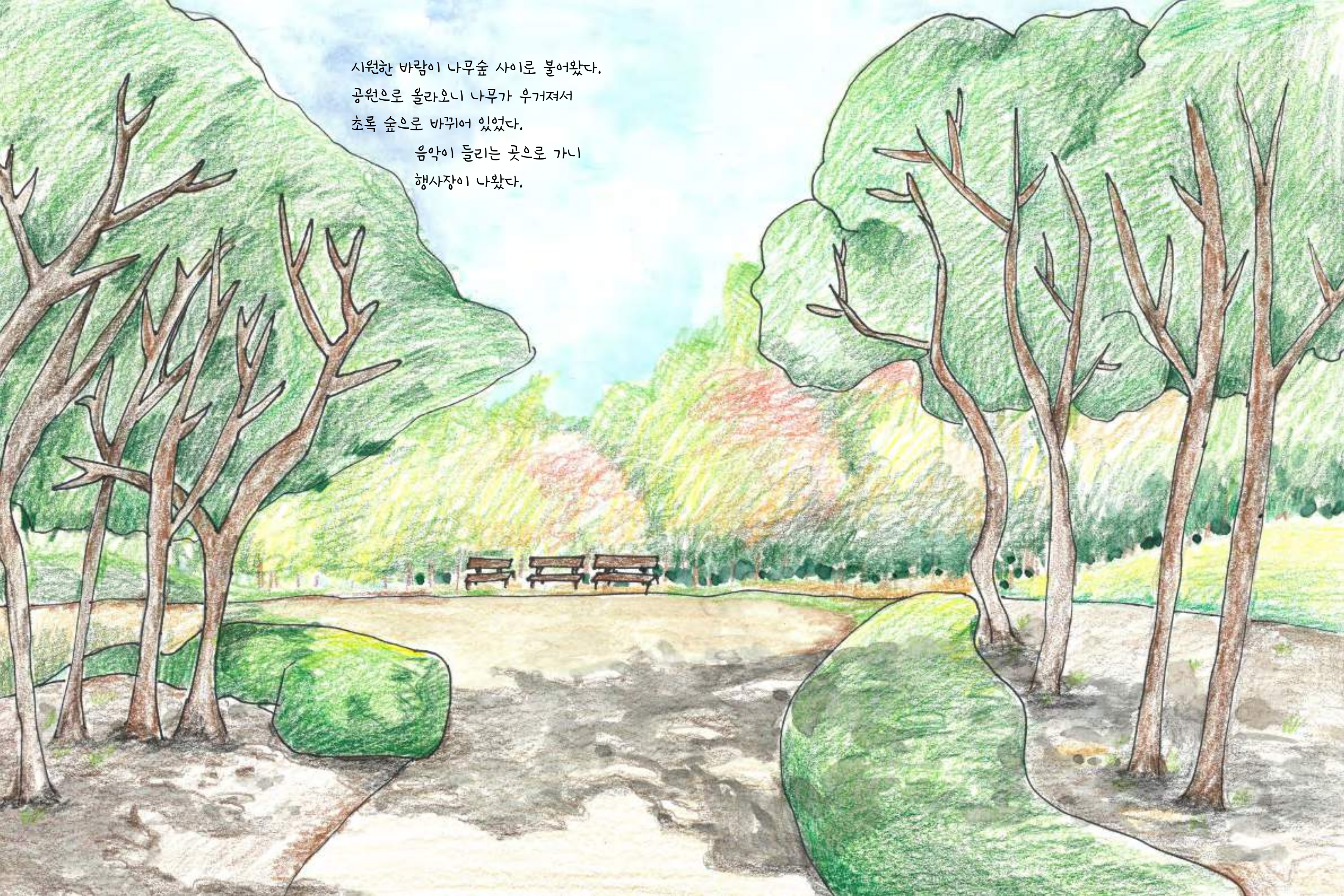
용정근린공원 입구에 도착했다.
농구장을 지나서 산책로로 올라갔다.
“지난 주에 형이랑 여기서 농구 했었어.”
희준이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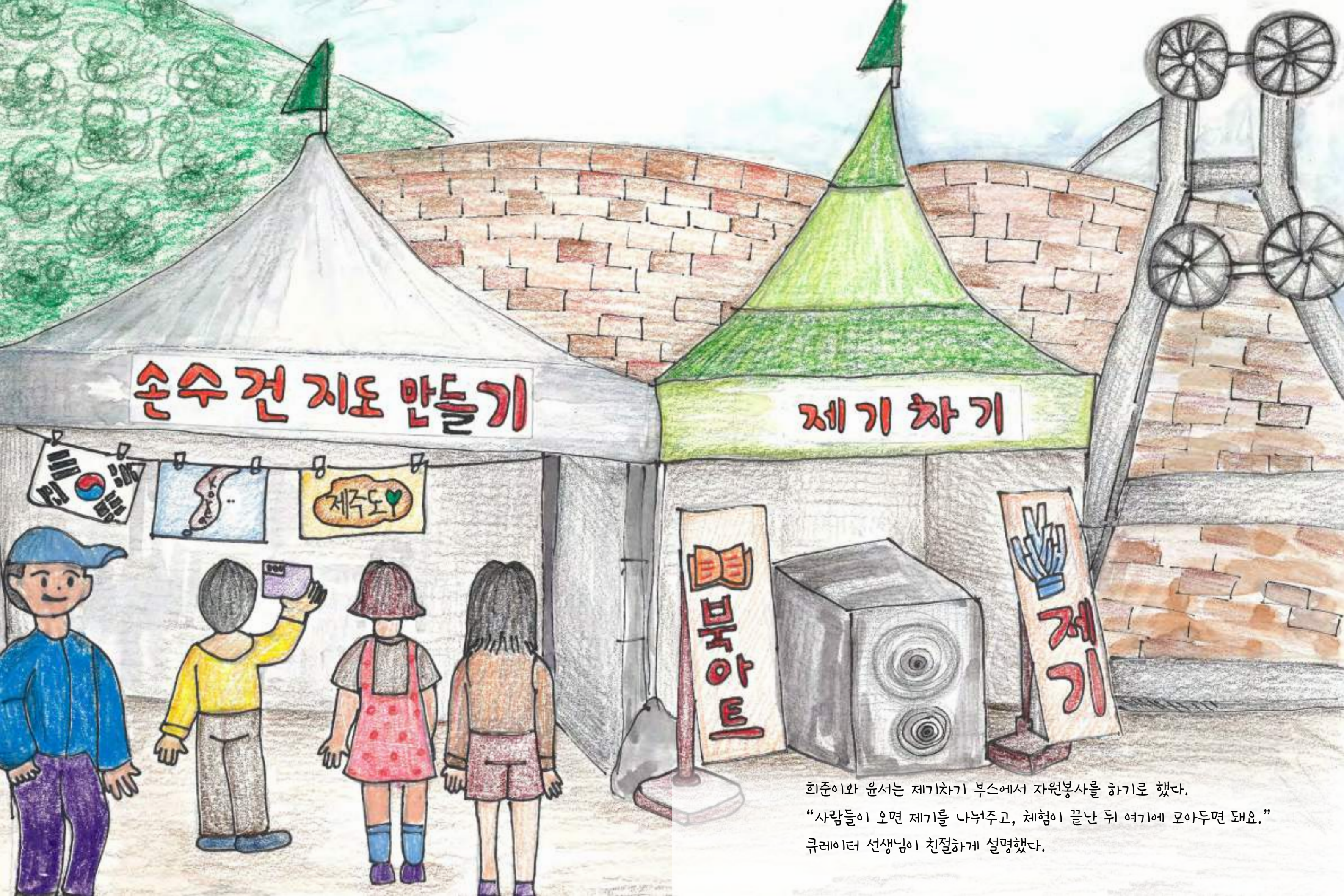
“여기 저녁에 산책 와도 좋아. 나는 아빠랑
강아지 산책시키러 자주 와.”
윤서가 말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니 안내 푼말이 나왔다.



시원한 바람이 나무숲 사이로 불어왔다.
공원으로 올라오니 나무가 우거져서
초록 숲으로 바뀌어 있었다.

음악이 들리는 곳으로 가니
행사장이 나왔다.





손수건 지도 만들기

제기 차기

북아리

제기

희준이와 윤서는 제기차기 부스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오면 제기를 나눠주고, 체험이 끝난 뒤 여기에 모아두면 돼요.”
큐레이터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제기차기 부스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왔다.

아이들은 제기를 받아서 연습했다.

그때, 한 아이가 제기를 친구에게 던졌다.

“제기 던지면 안 된다.”

희준이가 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을 맞추고 있었다. 겨우 던지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쳤다. 희준이는 아이들을
따라 다니느라 힘들었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참았다.

옆에 있던 아줌마가 제기를 주워다 주었다.

“중학생들이 열심히 자원봉사 하니 보기 좋구나.”

희준이는 아줌마의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마을 행사가 끝나고 큐레이터 할아버지가
전시된 액자를 보며 마을 이야기를 시작했다.
첫 번째 액자에는 옛날 지도 사진이 있었다.
“여기는 원래 바다였어요. 서남쪽 끝에 ‘낙섬’이라는
자그마한 섬이 있었어요. 낙섬은 옛날에 서해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어요.

1976년 송의동에서 송도까지
임해관광도로가 낙섬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되어 낙섬이
사라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직도
도로명에는 남아있어요.
낙섬사거리, 낙섬중로 등 표지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원도사 터
기념비로도 알 수 있지요.”
희준이는 우리 동네가 섬이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 바다를 메꿔죠. 여기가 뭘까요?”

큐레이터 할아버지는 옆에 지도 그림을 가리켰다.

“그냥 땡 같은데요.”



“여기가 바로 염전이에요.”

1929년 조선염업주식회사에서 낙섬 앞 바다를 메워 염전으로 개발했어요.

그러나 1966년 주안 염전이 문을 닫으면서 낙섬 염전도 함께 문을 닫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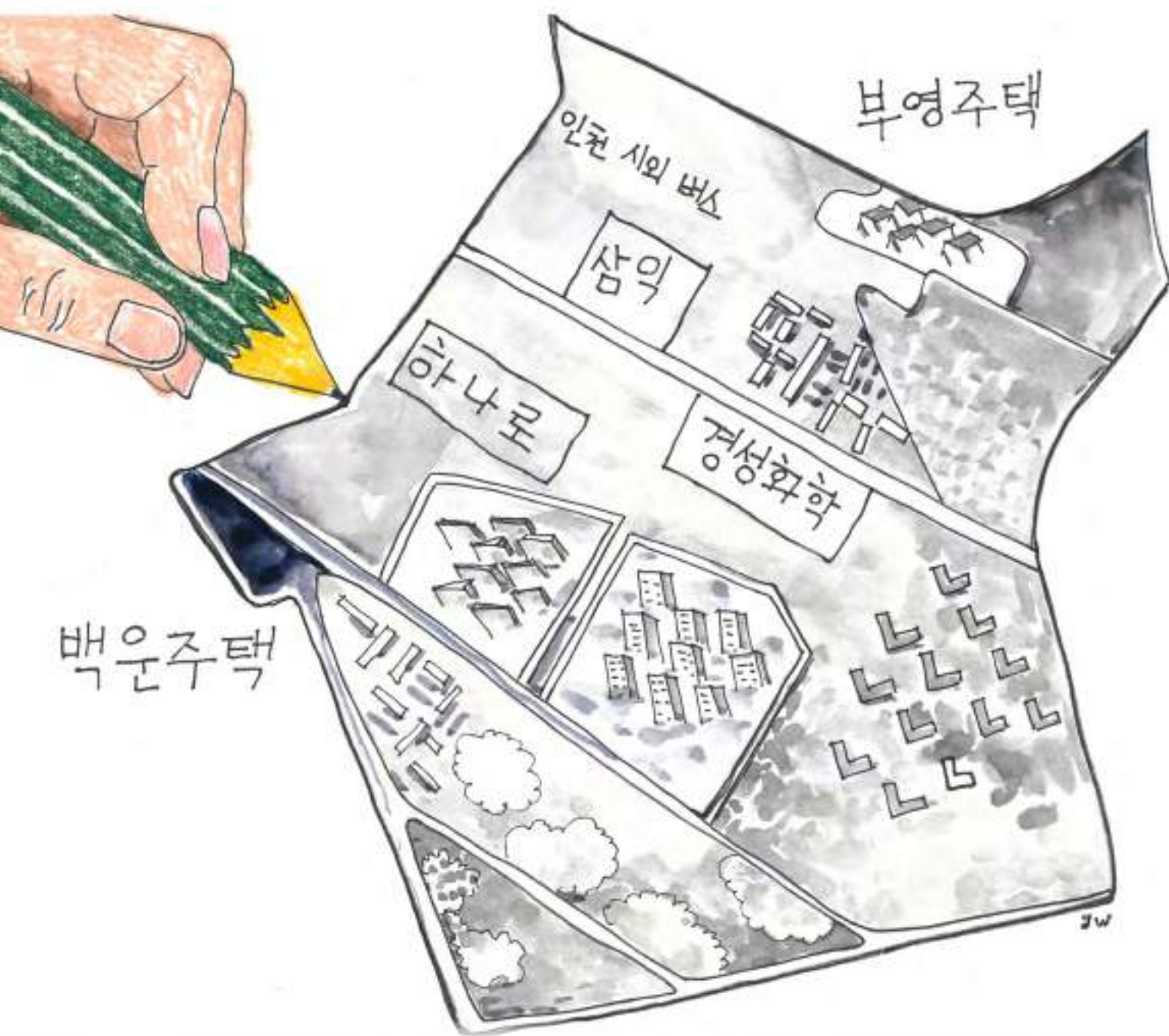
“1976년 토지금고에서 이 염전 땅을 샀어요. 토지금고가 뭘까요?”

“토지금고요? 금고는 중요한 것 보관하는 상자 같은 것 아녜요?

그럼 땅을 보관하는 곳인가요?”

“비슷하죠. 토지금고는 1975년 세워진 정부 투자 공기업으로
지금은 내토지주택 공사로 바뀌었죠.”

“알아요. 아파트 만드는 곳이요.”



“토지금고에서 이 일대의 땅을 샀고 1978년에 용현동 610, 627번지 일대에 모범주택단지를 만들었어요. 그 위로 집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곳은 토지금고라 불리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용현2동이나 용현5동보다 토지금고가 훨씬 더 정겨운 이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전시되었던 사진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옛날에는 수인선이라는 열차가 있었어요. 그 열차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화물과 인력 수송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바람길 숲의 철로로 그 열차가 달렸죠.”

“아, 그렇군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더 물어봐요.”

희준이는 아침에 오면서 봤던 철로가 궁금했다.

“바람길 숲 바닥에 철로가 있던데 그건 뭐예요?”

희준이는 토지금고 시장으로 걸어가면서
'토금로'라는 글자를 봤다.
그때부터 '토금'이 붙은 글자들을 찾았다.
'토금 식당', '토금 마트', '토금로 16번길'.
'여기에 토지금고라는 지명이 있어서 주소에도
토금로가 붙는구나.
마을 역사를 알게 되니 이런 것들도 보이네.'

토지식당

888-7777

토지식당

돈장찌개
삼겹살
오리고기
김치찌개
백숙



토지약국

약국

토지금고시장

토지
금고





희준이와 윤서는 토지금고시장에 있는 떡볶이 집으로 갔다.
 사실 떡볶이 보다는 떡볶이 옆에 쓰여 있는 '토금'이라는
 글씨가 희준이의 눈에 더 들어왔다.
 희준이는 윤서와 떡볶이를 먹고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한 희준이는 가족들에게 마을의 역사에 관해 설명했다.
 가족들도 마을 역사에 대해 들으며 신기해했다.
 우리 마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정말 뿌듯한 하루였다.



일주일 후, 수행평가 발표 시간.
희준이와 윤서의 차례가 되었다.
“저희는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희준이와 윤서는 발표를 마치고 역사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희준이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도로 표지판을 보며 걸었다.
역사가 있는 마을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내가 사는 우리 동네는 토지금고다.



읽고 걷고 쓰고 우리 동네 지도



토지금고시장

토지금고가 있었던 곳에 2001년 시장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토지금고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약 130여 개 점포가 있으며 지붕아케이드와 보도로 잘 정비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17-70

낙섬사거리와 원도사 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북쪽으로 낙섬사거리가 있다. 이곳이 예전에 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섬의 옛 이름은 '원도'인데 원도에서 조선 시대 나라의 안위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던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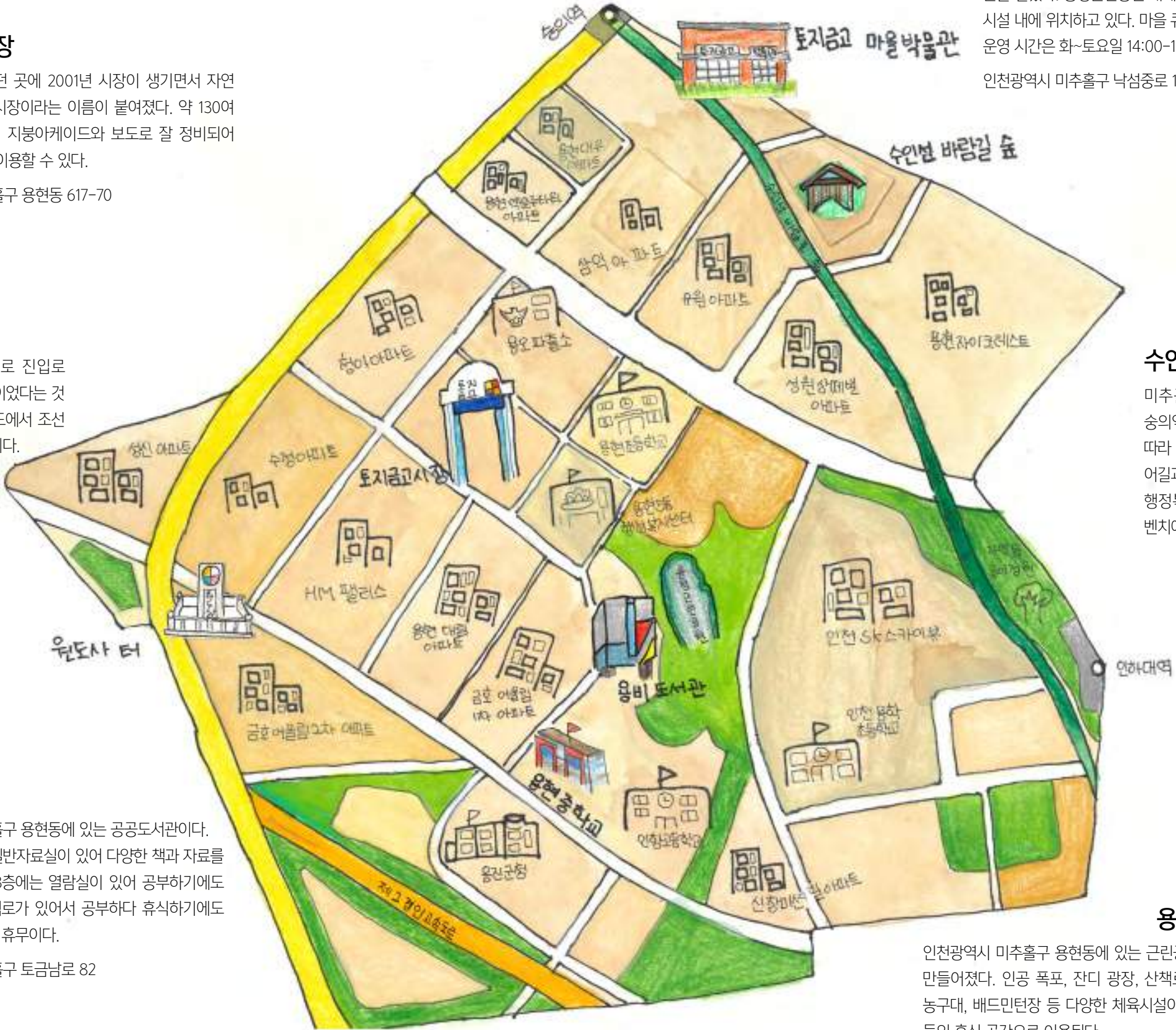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27-74



용비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다. 어린이자료실과 일반자료실이 있어 다양한 책과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3층에는 열람실이 있어 공부하기에도 좋다. 주변에 산책로가 있어서 공부하다 휴식하기에도 좋다. 매주 월요일 휴무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82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제1호 박물관으로 2015년에 문을 열었다. 용정근린공원 내에 있었던 박물관이 지금은 LH미추홀 3단지 주민편의 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큐레이터가 있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화~토요일 14:00~17:00 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29



수인선 바람길 숲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도시바람길 숲은 수인선 송의역에서 인하대역 사거리까지 1.5km 길이 선로를 따라 만들어졌다. 잔디블록길, 황토포장길, 메타세콰이어길과 운동 시설 등이 있어 산책하기에 좋다.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는 바람길 숲 책방도 있어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용정근린공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2002년 만들어졌다. 인공 폭포, 잔디 광장, 산책로, 연못, 운동장, 농구대,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12-7



그림책을 만든 우리들의 이야기



김준영 처음에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활동인 줄 알았는데 마을을 답사하고 그림책 원고를 쓰고 그림책 원화를 그리면서 즐거움을 느꼈다. 또 그림책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도서관원들끼리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다.

송찬휘 우리 수업 중 초반에 했던 동네 탐방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 동네 이름의 유래와 토금로의 뜻 수인선 길 등이 기억에 남지만 토지금고 박물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동네의 역사가 신기해서 그런 것 같다.

안지율 처음 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과연 내가 완성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탐방 수업을 하고 다함께 의견을 내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책이 완성되었다. 내 걱정과 달리 그림책 제작은 매우 즐거웠고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완성했음에 뿌듯함도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몰랐던 인천의 역사를 알아가는 게 재미있었다.

오예교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우리 동네의 신기한 사실들을 알아서 유익했고 우리 동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림책의 한 부분을 창작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꼈다. 정말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이정준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 동안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그리고 같이 회의하며 책을 만드는 시간이 기분이 좋았다.

이지수 마을 답사를 하고 그림책 글, 그림을 다른 형, 친구들과 함께하여 더욱 친해지고 또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 같다. 책을 만들며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막상 다 그리고 완성본을 보니 뿌듯했다.

이희우 우리 동네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책의 원고와 원화 제작하면서 우리 동네를 자세하게 관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책을 만들 때 항상 재미있었다.

정호진 그림책 만들기 활동이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재미있었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다. 그 여러 활동 중에서 마을 답사가 가장 재미있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 마을을 걸으며 못가 본 곳도 가보고 오랜만에 오래 걸어 기분이 좋았다.

조건우 우리 마을을 탐방하면서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우리동네 주요 명소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어 재미있었다. 원고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어려웠지만, 다 완성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

조민준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완성 시킬 수 있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탐방 수업, 그림 그리기 수업 등 여러 가지 수업을 하다 보니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도서관원들과 함께 그림책을 만드니 뿌듯했다.

김견원 처음에는 동네 탐방부터 시작해 토지금고 박물관까지 해서 정말 재미있었고 수업을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시우 마을 답사 나갔을 때 많이 힘들었지만, 길에서 그냥 지나쳤던 토지금고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리 동네, 토지 금고

발행일 2023년 9월 8일
글·그림 김준영, 송찬휘, 안지율, 오예교, 이정준, 이지수, 이희우, 정호진, 조건우, 조민준, 김견원, 김시우
지도 신희진 작가, 엄세영 화가, 오진희 교사
발행인 정경애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남로 27
전화 032-450-9100
누리집 <https://lib.ice.go.kr/juan>
인쇄 주니어스

ISBN 979-11-975275-5-5 (47910)

이 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에서 교육금고 협력사업「2023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용현중학교 도서관 '소년책방' 학생들과 함께 읽·견·쓰 활동으로 만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용현동) 마을 역사탐방 그림책입니다.
이 책의 글과 그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